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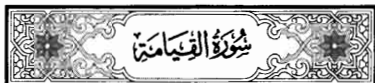
## 제75장 끼야마

메케에서 계시된 40절로 믿음의 기본 가운데 하나인 부활과 보상을 다루면서 특히 부활과 그 양상 그리고 시각과 그 고통, 이날에 있을 인간의 상태, 불신자들이 내세에서 직면하게 될 고통과 재앙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장이 「끼야마」 즉 부활의 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9권 op. cit, p.73).

본 장에서 부활의 날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라는 맹세로 시작하여 그 증세를 2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달이 가리워지고 눈이 현혹되며 해와 달이 하나로 겹쳐지니 이는 불신자들에게 대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할 때 선지자가 그것을 암송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계시된 말씀을 암기하기 위하여 서둘러 성급히 혀와 입술을 움직이지 말 것을 촉구하고, 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하여 행복한 사람은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며 불행한 사람은 그의 얼굴이 검게 되고 근심과 고뇌에 빠지며 인간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상태를 묘사한 후,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부활케 할 능력이 없겠느냐는 예증으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 제 75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 1. 부활의 날을 두고 맹세하사
- 2. 스스로 책망하는 영혼을 두고 맹세하니<sup>1)</sup>
- 3.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뼈들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뇨<sup>1)</sup>
- 4.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손가락 끝의 뼈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노라
- 5. 그래도 인간은 그의 앞에 남아 있는 기간까지도 불신하려 하며<sup>1)</sup>
- 6. 부활의 날이 언제이뇨 라고 묻더라
- 7. 그리하여 시야는 현혹되고
- 8. 달은 어둠속에 묻히며
- 9. 태양과 달이 함께 모이는 날<sup>1)</sup>

- لَا أَقْسَمُ بِيَوْمِ الْقِيَامَةِ ①
- وَلَا أَقْسَمُ بِالنَّفْسِ الْكَوَامَةِ ②
- أَيَسُّبُ الْإِنْسَانُ أَنْ نَجْمَعَهُ عِظَامَهُ ③
- بَلْ قَدِيرِينَ عَلَىٰ أَنْ نُسَوِّيَ بَنَانَهُ ④
- بَلْ يُرِيدُ الْإِنْسَانُ لِيَفْجُرَ أَمَامَهُ ⑤
- يَسْأَلُ أَيَّانَ يَوْمِ الْقِيَامَةِ ⑥
- فَإِذَا سَوَّىٰ وَبَصُرَ ⑦
- وَخَسَفَ الْقَمَرُ ⑧
- وَجُمِعَ الشَّمْسُ وَالْقَمَرُ ⑨

2-1) 라 : 부정의 “라”가 아니라, 맹세에 대한 강조이다.

3-1) 본 절은 알디 이븐 라비아에 관하여 제시된 절로 그가 어느날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찾아와 말하길, “무함마드여, 부활의 날에 관하여 그리고 언제 어떻게 오신지에 관하여 이야기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때 선지자는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길, ” 내가 그날을 목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를 믿지 아니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뼈들을 다시 모아 부활하느뇨?“라고 하자 본 절이 제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 사부니, 제19권 op. cit, p.75).

5-1) 이렇듯 인간은 과거에 그랬듯이 동물적 욕망에 탐닉된 나머지 남아 있는 여생의 기간까지도 부활의 날을 불신하려 하도다.

9-1) 불신자들에게 응벌을 내리기 위해 태양과 달이 함께 만난 다음 바다로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응벌이 될 것이라고 ‘아따’는 말하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르비 113/29).

10. 은신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그날 인간은 질문하나

يَقُولُ الْإِنْسَانُ يَوْمَئِذٍ أَيْنَ الْمَكَرُ ۝

11. 그들에게는 은신처가 없노라

كَلَّا لَا وَزَرَ ۝

12. 그날은 주님께게로만 돌아갈  
거처 뿐이라<sup>1)</sup>

إِلَىٰ رَبِّكَ يَوْمَئِذٍ الْمُسْتَقَرُّ ۝

13. 그날 인간은 그가 앞서 행한  
모든 것과 후에 미루어졌던 모든  
것을 알게 되매<sup>1)</sup>

يُنَبِّئُ الْإِنْسَانَ يَوْمَئِذٍ بِمَا قَدَّمَ وَأَخَّرَ ۝

14. 그때 인간은 그가 스스로의  
증인이 되노라<sup>1)</sup>

بَلِ الْإِنْسَانُ عَلَىٰ نَفْسِهِ بَصِيرَةٌ ۝

15. 어떤 변명도 그에게 유용하  
지 않노라<sup>1)</sup>

وَلَوْ أَنفَىٰ مَعَادِيزِهِ ۝

16. 꾸란을 계시 받음에 서둘러  
그대의 혀를 움직이지 말라<sup>1)</sup>

لَا تُخَوِّدْ بِهِ لِسَانَكَ لِتَتَمَجَّلَ بِهِ ۝

17.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 그대  
로 하여금 암송케 하리니

إِنَّ عَلَيْنَا جَمْعَهُ وَقُرْآنَهُ ۝

18. 하나님께서 그것을 읽은 후에  
그대가 따라 읽으라<sup>1)</sup>

فَإِذَا قَرَأْنَاهُ فَاتَّبِعْ قُرْآنَهُ ۝

12-1) 모든 피조물의 최후 거주지는 하나님께로 귀의하며 그분 외에는 은신처도 그리고 피난처도 없다고 알루씨는 풀이하고 있다(무-호 알마아-니 140/29).

13-1) 인간이 살아 있을 때 행하였던 크고 작은 그리고 훌륭하고 비열했던 모든 그의 행위의 결과와 죽은 후로 미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그날 인간은 알게 된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 19권 op. cit, p.76).

14-1) 그가 행한 추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증인은 자기 스스로의 증인만으로 충분하여 다른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날 너희에의 계산은 네 자신으로 충만 하리라" 이브누 암바쓰는 "자기 혼자만의 증인으로 충분하다. 그가 들었던 귀가 증언할 것이요, 그가 보았던 눈이 증언할 것이요, 걸어갔던 두 다리가 증언할 것이요, 행하였던 손등이 증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타프씨르 알따브리 115/29).

15-1) 그날의 어떠한 변경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변명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날의 증인은 자기 스스로가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알타프씨르 알카비르 222/30).

16-1)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계시를 받을 때 다급하여 서둘러 암송하지 말라는 뜻(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 19권 op. cit, p.77).

18-1)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대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읽은 후에만 따라 읽되 천사가 계시를 전하고 있을 때는 조용히 경청하되 혀와 입술을 움직이지 말라는 뜻(Ibid. p.77).

19. 그런 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여 주리라<sup>1)</sup>

كُنْزًا عَلَيْنَا بَيَانَهُ ۝١٩

20. 그러나 너희는 지나가는 현세의 삶을 사랑하고

كَأَنَّ بَنِي مُؤْمِنِينَ الْعَالَمِينَ ۝٢٠

21. 내세를 게을리 하도다

وَتَذَرُونَ الْآخِرَةَ ۝٢١

22. 그날 일부는 그들의 얼굴에 빛을 발산하며

وُجُوهُ يُؤْمِنِينَ تَأْوَدُ ۝٢٢

23. 그들의 주님을 향하여 있고

إِلَىٰ رَبِّهَا نَاظِرَةٌ ۝٢٣

24. 그날 일부는 그들의 얼굴에 슬픔과 고뇌로 가득차며

وَوُجُوهُ يُؤْمِنِينَ بِأَسْرَةٍ ۝٢٤

25. 그들 위에 얼마의 큰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도다

تَظُنُّونَ أَنَّ يُنْفَعِلُ بِهَا فَآخِرَةٌ ۝٢٥

26. 그때 영혼이 목구멍까지 이르매<sup>1)</sup>

كَلَّا إِذَا بَلَغَتِ التَّرَاقِي ۝٢٦

27. 그를 구할 마술사가 누구이뇨 라는 소리가 들리니

وَقِيلَ مَنْ مَرَّاقِي ۝٢٧

28. 그는 이별할 시간이라는 것을<sup>1)</sup> 확신하고

وَدَّكُنْ أَنْتَهُ الْفِرَاقِي ۝٢٨

29. 한 다리가 다른 것에 포개어져

وَالتَّعَبِ السَّاقِ بِالسَّاقِ ۝٢٩

19-1) 계시의 뜻과 규범을 설명하여 준다는 뜻으로 선지자 무함마드가 계시를 접하고 있었을 때 그 계시를 암송하기 위해 그의 혀와 입술을 움직였을 때(...그대의 혀를 서둘러 움직이지 말라...)고 계시가 내려졌고 그후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에게 계시를 전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대로 읽었으며(부카리와 무슬림 그리고 아흐맛이전함), “우리가 그것을 모아 그대로 하여금 암송케 하리라”고 계시한 후 다시 “우리(하나님)가 그것을 읽은 후에 그대가 따라 읽으라”고 계시한 후, “우리(하나님)가 그것을 설명하여 주리라”고 계시된 것으로 그 계시의 배열 순서가 묘사되고 있다(Ibid. p.77).

26-1) 죽음에 이르니, “타라끼야”는 가슴의 최고 및 부분이란 뜻으로 영혼이 목구멍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표현임.

28-1) 죽음의 천사에 끌리어 세상과 가족과 재물과 이별할 시각.

30. 그날 주님께로 운반되어 가  
노라

31. 그것은 그가 확증하지 아니  
하고<sup>1)</sup>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며

32. 진리를 거역하고 외면했으며<sup>1)</sup>

33. 완전히 기만된 그의 무리를  
오만하게 따랐기 때문이라

34. 너희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35. 더하여 너희에게 재앙이 있  
으리라<sup>1)</sup>

36. 아무 목적없이 방황토록 내  
버려 두리라 인간은 생각하느뇨<sup>1)</sup>

37. 그는 단지 흘러나온 정액의  
한 방울에 불과하지 않느뇨

38. 그리하여 응혈이 되매 그분  
은 그를 완전한 형상으로 지으시  
고

39. 남성과 여성으로 자웅을 두  
셨으며

40.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분이  
죽은 자를 살게 할 수 없단 말이뇨

إِلَىٰ رَبِّكَ يَوْمَئِذٍ الْمَسَاقِيُّ ۝٣٠

فَلَا صَدَقَ وَلَا وُصِّلَ ۝٣١

وَلَكِنَّ كَذَّبَ وَتَوَلَّىٰ ۝٣٢

ثُمَّ ذَهَبَ إِلَىٰ أَهْلِهِ يَتَمَطَّىٰ ۝٣٣

أَوَلَىٰ لَكَ قَاوَلِي ۝٣٤

ثُمَّ أَوَلَىٰ لَكَ قَاوَلِي ۝٣٥

أَيَحْسَبُ الْإِنْسَانُ أَنْ يُتْرَكَ سُدًى ۝٣٦

أَلَمْ يَكْ نُطْفَعًا مِنْ مَرْمِيٍّ يُبْمِنِي ۝٣٧

ثُمَّ كَانَ عَلَقَةً فَخَلَقَ فَسَوَّىٰ ۝٣٨

فَجَعَلَ مِنْهُ الذَّكَرَ وَالْأُنثَىٰ ۝٣٩

أَلَيْسَ ذَٰلِكَ بِتَعْدِيرٍ عَلَيَّ أَنْ يُعْمِيَ السَّمَوَاتِي ۝٤٠

31-1) 꾸란의 진리를 확증하지 아니하고

32-1) 꾸란을 거역하고 믿음을 외면하였으며

33-1) 불신자 아무 자훈과 그밖의 불신자들에게에 대한 경고

36-1) 부활과 심판과 보상이 없을 것이라 불신자들은 생각하느뇨